



대구광역시 일보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제 2943호 단가 4337원(음력 1월 22일)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11일 오후 대구 북구 연암로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성공을 위한 대학생 물길원정대·자원봉사자 발대식을 마친 물길원정대원들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대학생 물길원정대는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최 홍보와 물 분쟁 지도제작, 물 국민국 체험 등 물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세계물포럼의 성공개회를 위한 258명의 자원봉사자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로 '천년의 미소' 경주와 경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실히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제공 경북도청>

오늘의 **Hot**



대구가 낳은 대한민국 '야구 영웅' 이승엽 중학교 교과서 실렸다

월성1호기 폐쇄 광풍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년... 시민단체 월성1호기 폐쇄 촉구



<관련기사 11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폐쇄 광풍'이 불고 있다.

세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탈핵 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인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문재인 대표와 유윤근 원내대표 등 8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4년째를 맞은 11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1호기를 폐쇄하라는 시위가 전국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월성1호기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수력원자력도 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6일부터 월성1호기의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 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경주시민을 위협하기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환경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화와 노후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월성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은 서울을 포함한 광주, 울산, 청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문제를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기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며 "이완구 신인 총리 등은 우리 사회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우 기자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마진을 높다"

세정연 홍의락 의원,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5-6번째 높아 유족 부담 가중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의 운영마진율이 전국 국립대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은 11일 경북대병원 2곳(본원·칠곡)의 장례식장 운영 마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5-6번째로 높아 유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 평균 마진율은 31.4%였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39.1%, 칠곡경북대병원은 38.5%로 두 곳 모두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칠곡 경북대병원의 장례식장 운영매출과 마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은 장례식장 비용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줄 의무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첫 동시조합장선거, 총 투표율 80.2%

총투표율 지난 10년간 조합장선거 평균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잠정 총투표율이 지난 10년간 조합장선거 평균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실시한 선거에서 선거인 229만7075명 중 184만3283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잠정)이 8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조합장선거 평균 투표율 78.4%보다 높은 수치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조합장선거가 전국 동시에 실시돼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동향선거인명부를 사용해 선거인의 투표편

의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762건으로 이 중 고발이 149건이며 지난 10년간 개별적으로 처리된 조합장선거의 조합별 평균 조치건수는 0.575건으로 이번 사건과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직까지 돈 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 △혈연·지연에 얽매인 지역사회의 특성 △금품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 등으로 봤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후보자와 언론 등으로부터의 의견이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치역 기자

'국민타자' 이승엽(39)이 교과서에 실렸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승엽이 중학교 교과서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삼양미디어의 2015년 개편한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각계 직업 종사자 17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의 인터뷰와 사진이 2페이지에 걸쳐 게재됐다.

최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교과서를 채택한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이승엽은 "교과서에 인터뷰가 실리다니, 기쁜 일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 내가 나온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다. 야구를 계속 잘해야겠다. 내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답 형식의 인터뷰에서 이승엽은 "일곱살 때 프로야구가 생겼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또래 친구들이 장래 희망으로 과학자, 선생님, 의사, 대통령 등을 말할 때 나만 야구선수가 꿈이라 말하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쳐있던 1999년에 많은 홈런(64개)을 치며 기록을 세웠다. 내 홈런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뿌듯했었다"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삼양미디어측은 "우리나라에 2만여 개 직업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다양한 연령층의 팬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이승엽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 야구 선수의 삶과 직업으로서의 모습 등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송준관 기자



대가야의 응성

4월 9일(목) ~ 12일(일)

장소 | 대가야박물관 및 고령읍 일원

http://fest.daegaya.net

문의 | 054)950-6424, 6111-2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6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영덕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영덕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상반기(2015. 4. 29)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과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주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읍·면·출장소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전(全)세대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공·결 처치를 거쳐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액됨으로 기간 중 자진신고하고, 전 세대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건 기자

경주시,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경주시는 봄철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도로(가로)를 대상으로 음란·퇴폐적인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노후·불법 고정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음란·퇴폐적인 선정적 유해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 폐기 처분과 함께 이동통신회사와 협조해 통신망 정지 조치를 하는 등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윤용찬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환경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영덕, 농촌일손부족 해결 적극 나선다

영덕군과 (사)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 연합회는 농번기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 농촌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밝혔다. 농촌일자리 지원센터는 (사)한농연 영덕군연합회가 업무를 대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센터

는 한농연사무실에 설치되는데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와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들을 연결하는 일자리매칭이 주 역할이다. 농번기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과수와 시설채소 분야를 중심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집중 운영하며 그 밖에 작목에는 농가에서 필요할 때 수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승건 기자



중국 언론사 관계자 초청 포항 매력 흠뻑 '팸투어'



중국인 관광객유치 위한 포항 관광상품 홍보개발

중국 언론사 관계자 15명이 경북도와 경북도관광공사 초청으로 11일 포항 팸투어를 가졌다.

이번 팸투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포항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팸투어단은 포항운하 크루즈를 체험했으며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포스코 역사관 등 포항만의 차별화된 관광코스를 둘러봤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운하관을 찾은 팸투어

단에게 포항의 관광지와 먹거리를 적극 알렸으며, 포항-서울간 KTX개통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쳐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팸투어 단장은 중국 여행가잡지사 편집장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서울, 제주뿐만 아니라 매력 넘치는 도시 포항을 널리 알릴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KTX개통에 따른 수도권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경북도, 관광공사와 연계해 해외 여행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포항관광 팸투어와 세일즈 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우 기자

울진, 전문 농업인 한자리에 모두 모여

울진녹색농업대학 총동문화 개최

울진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꿈을 모아 미래농업, 힘을 모아 행복농촌'이라는 슬로건으로 울진녹색농업대학 수료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영근 총동문화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울진농업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울진농업을 실질적으로 선도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울진녹색농업대학 수료생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울진녹색농업대학장인 김진원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울진군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돈 되는 소득 작목 중심의 지역대표작목 육성, 농업의 6

차산업화, 노동력절감형 농업발달' 등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울진녹색농업대학생들이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으로 동참해 실질적인 울진농업의 핵심리더로 자리 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여진 특강에는 김두성 기공학 강사가 '한민족 고유의 풍류건강법'이라는 주제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농업인들이 소홀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므로써 농업인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세심한 배려를 하기도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9기에 걸쳐 배출한 310명의 울진녹색농업대학 동문들과 향후 졸업하는 녹색농업대학생들을 울진농업의 중추적인 핵심리더로 육성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영덕군민들과 전국대회 우승 기쁨 함께 나눠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챔피언 강구초, 우승 카퍼레이드 펼쳐

지난 10일 오전 영덕 강구면 일원과 영덕군청 일원에서 '2015 보물섬배 전국 유소년 축구 우승자'인 강구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단을 위한 카퍼레이드가 펼쳐져 꽃샘추위마저 녹이는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날 카퍼레이드는 강구초등학교축구후원회, 강구면사무소, 강구면체육회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열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강구초등학교(교장 박순남, 감독 최호관) 축구부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 조1위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 강구초등학교 축구부는 8강전에서 부산남동초등학교를 3:0으로 격파하고, 4강전에서는 충북

덕평초등학교를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로 제압한 후 결승전에서 성남중앙초등학교를 상대로 시종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다 전반 종료로 5분 남기고 결승점을 올려 우승컵을 차지했다.

전국대회 우승과 더불어 축구부 이한선 선수가 최우수선수상, 배준호 선수가 GK상, 김지민 선수가 최우수수비상을 수상했으며 한일 친선축구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는 쾌거도 이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강구초등학교 축구단 창설이후 최초로 획득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우승컵이어서 더욱 뜻 깊고 자랑하고 기쁘다. 오늘의 승리는 영덕의 힘이고, 4만여 군민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아 가슴 뭉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호관 감독과 선수들은 물론 원정경기에 참여해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부모님들과 우리군민들의 뜨거운 축구 사랑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축구매니아로서 군민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안겨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승건 기자

경주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최종 선정

경주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울산-경주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경주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은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에 속한 경주시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올해 12월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가 70%인 14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6억 원을 부담해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인 '지역행복생활권'은 접근성, 기능적 연계, 지리적 연계,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의 유형 중 경주는 중추도시생활권(울산, 경주, 밀양, 양산)으로 지난해 2월 구성을 완료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경주 간 통행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도모 및 지역 간 상호교류 확대 및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21세기 동해안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

盈德

Welcome to Yeongdeok

영덕군은 태백지역의 신비스런 팔각산과 옥계계곡 등의 명산절경과 동해안 53Km의 푸른바다가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이름난 곳이며 저마다의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전설이 서려있고 대개, 복숭아등 특산물이 풍요로운 한국지방자치경연대상에 빛나는 고장입니다.

블루로드와 풍력발전단지

블루로드 B코스

옥계계곡: 천연기념물, 지방민속문화유산과 동해안의 기암괴석이 절경인 '이름난 옥강이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기암괴석이 절경인 계곡입니다.'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7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영천시 다문화업무종사자 간담회 개최

영천시 교육문화센터는 지난 10일 관내 식당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위한 다문화업무종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일선 현장에서 앞장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 업무관련자 15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

과 장기적인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업무추진 과정상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해 다문화지원사업 발전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일만 기자

경산, 무학 신도시건설 본격 시동

무학택지 개발사업 보상 안내 주민설명회 가져 공금증 해결

경산시 하양읍은 지난 10일 서사리 마을회관에서 서사, 도리, 양지리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학택지 개발사업 및 보상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LH 경산무학 PM(Project Manager) 사업단(단장 이성기)에서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보상안내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금증을 해결해 줬다.

이날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서사리 마을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과 보상 평가

기준시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2008년 1월 2일이 아닌 개발계획 승인된 날짜인 2014년 12월 16일로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LH공사의 사업성과 본 택지지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초시설(도로, 상, 하수도)설치 등 개발전체를 봤을 때 제척은 불가하며, 지금 공사 중인 조산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과도 연계, 새로운 하양 무학 신도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포함시켜 개발돼야 한다"고 설득했으며,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 보상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물론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 책정되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용 하양읍장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LH공사 관계자에게는 보상과정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읍에서도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산시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주민을 대표하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을 경산시와 LH공사, 주민대책위가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신경운 기자

경산시, 유용미생물 농업 활용 농산물 명품화에 기여한다

경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농업육성 및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자체 생산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상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미생물의 배양 공급을 전담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3-2014년 1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60㎡의 친환경미생물실을 건립, 멸균배양기, 진탕배양기, 혼합조, 저온저장조, 자동포장기 등 40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올해부터 연간 76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한다.

지난 1-2월 신청을 통해 결정된 미생물 이용 희망농가 450호를 대상으로 매주 목, 금요일에 무상 시범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이번에 공급할 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은 토양개량, 병충해 예방 및 당도, 저장성 증대에 효과가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김상해 소장은 "친환경미생물 공급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으로 경산시 농산물 명품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최영조 경산시장은 12일 오전 경산컨벤션웨딩 연회장서 열리는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축하를 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12일 오후 성내동에 신축된 영천시교육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 시민사회교육의 장 신축을 축하한다.



김경곤 성주군수는 12일 오전 성주문화원 3층에서 열리는 '성주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성주 월항면, 3백여명 인력 투입 강풍에 날린 비닐하우스 복구 총력

성주군 월항면은 오전 10시 강풍으로 인해 면 전역에 걸쳐 30여농가 100여동(6ha)의 비닐하우스 철근이 엇가닥처럼 휘어지고 비닐이 벗겨지는 등 피해가 발생,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침부터 몰아친 강풍으로 인해 특히 일부지역(월항면 인촌리)에는 대부분 참외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벗겨지고 철근이 휘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 면사무소, 군직원, 농협, 인근 기업, 주민 등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철근을 바로 세우고 비닐을 덮어 피해 복구에 힘썼다.

홍성학 인촌리장은 "피해 복구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인촌리는 지형상 강한 돌풍이 자주 발생해 상시피해발생지역으로 참외 농가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이근서 월항면장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 빠르게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비닐날림방지를 위해 고정끈으로 다시 묶고 모든 하우스에 대해 점검토록 당부했다.

김두상 기자

시민이 행복한 복지영천 만든다

영천시, 2015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홍보나서

영천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제도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물려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 전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3월부터 행정자치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총괄반과 통합조사반, 홍보반, 민원대응반으로 구성되는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TF)을 조직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소관부서 다원화에 따른 집중홍보를 실시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일만 기자

고령, 농업인 스마트폰 앱 활용한 e-비즈니스 능력배양 교육 추진

고령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e-비즈니스 능력배양 교육을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매주 월, 화, 목, 총 10회)에 걸쳐 국악당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N미디어 석선옥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스마트폰 앱 활용, 사업자용 카카오톡

김양수 기자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및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 및 이통장 교육을 시작으로 개별 안내와 함께 시 홈페이지와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까지 제도 시행 전후 3개월 동안 민간 보조인력을 채용해 읍면에 각 1명씩 배치해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오는 5월부터는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려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긴 겨울 이겨낸 당도 높은 멜론을 따어요"

고령 친환경 성산멜론 첫 출하 한국유기농업 성산지회 대표 강정열씨 하우스서 60박스 출하

고령군 성산면 관내 비닐하우스에서는 긴 겨울을 이겨내고 당도 높은 멜론이 첫 출하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파종을 해 지난 5일 정식을 한 후 날씨가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도, 농민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한국유기농업 성산지회 대표 강정열(58) 씨 하우스에서 60박스/10kg를 출하했다.

이날 생산자 강정열씨는 "올해 과일 가격등향이 전년에 비해 떨어져 마음은 편치 않아도 소중하게 관리해온 포장이라 수확한 과일을 바라보는 마음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남지 성산면장은 "힘들게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값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유통체계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고령군 성산면 관내에서는 101호, 74ha, 1111동에서 멜론이 생산 재배되고 있으며, 3월말이면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수 기자

칠곡군
CHILGOK GUN

1914~2014 세파연륜 100년 위대한 유산

호국평화의도시 칠곡

낙동강서개항회 문화대극단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8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영양

안동,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 선정

안동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프로젝트' 공모에 응모해 안동중추도시생활권의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63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했으며, 안동중추도시생활권은 안동시와 연결한 의성, 청송, 영양, 예천군 5개 시군으로 구성했다. 김용구 기자

예천 보건소, 치매센터 '생생기억교실' 운영

예천군 보건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제2경증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자, 치매 고위험군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우리 마을 예쁜 치매센터 생생기억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센터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치매 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물론 치매가족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마을 예쁜 치매센터의 생생기억교실을 통해 치매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는데에 목적이 있다.

지난해 예쁜 치매센터 8개소를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85%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했으며 프로그램 참여이후 어르신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능력이 향상되고 인지능력이 강화되는 등 치매예방과 지연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마을 예쁜 치매센터를 하리면 부초리 경로당 등 11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각 읍면마다 운영담당자, 방문간호사, 대학생 치매검진사가 3인 1조로 구성되어 24회에 걸쳐 방문 운영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생생기억교실은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 미술, 음악, 감각자극, 신체단련 등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립안동노인전문병원과 경북도립대학교와 연계해 메타기억요법, 아로마치료, 한방진료, 발 마사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황원식 기자

영주, 한솔밥으로 농촌마을을 공동체로

영주시가 농번기에 농촌의 부족인력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확대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단산면 구구1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등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 일정규모이상 마을회, 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을 대상으로 농번기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정비, 취사도구 등 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구구1리 공동급식소는 마을회관을 이용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방정비, 가전제품 및

기타 취사도구를 구입해 3월부터 연간 90일 이상 농번기에 급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사철 식사를 챙기기 힘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촌마을 지역주민의 화합도모를 통해 농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 행복생활권 상생발전 통하다

소백산권 영주시·단양군 영월군 희망 함께 나눠...

영주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프로젝트' 공모에 응모, 최종 사업이 선정돼 지난 10일 선정 인증서를 받았다.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이 연계한 소백산생활권의 '천연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소백산 지역의 우수한 천연 생약자원을 상생협력을 통한 제품개발과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기존 부처사업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창조적 신규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영주시가 신청한 총 사업비는 29억원 정도이며, 최종 사업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문 컨설팅을 거쳐 4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영주시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선도사업 이외에도 연계사업 3건, 단독사업 9건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했으며, 올해 7월 연계 및 단독사업의 선정시에도 주관사인 영주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양 산불방지 발대식·캠페인

영양군은 2015년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영양군산림조합, 산림법인, 관련공무원 등 산림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행사 후에는 어깨띠 및 산불조심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영양군 읍내에서 산불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에 발대식을 갖게 된 감시원은 매일 산불취약지를 순찰하며 산불감시, 계도단속과 산불진화의 임무를 수행하며 산불진화대원은 평소에는 산불예방활동 산림보호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해 초동 진화한다.이 밖에도 군은 산불예방 홍보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차량용 깃발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홍보활동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불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권윤동 기자

안동대 의과대 설립 만장일치 채택

경북 북부지역 시·군 의장협의회 지역 공동 발전방안 심도있는 토론

경북지역 공동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 87차 경북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가 지난 10일 영양군 산촌생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월례회에서 김시흥 영양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청이전을 통해 경북 북부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북 북부지역 12개 시군의 역량을 결집,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사람을 터전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경북 북부지역은 의과대학과 3차 진료기관이 없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으며 예측불허의 각종 대형사고와 농·산업재해에 대비하고 '유병장수(有病長壽)'시대를 맞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안동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경북도 북부지역의 공동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권윤동 기자



예천, 상세주소 부여 확대 시행

예천군은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 제도를 대학,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 시행한다.

건물군(群)이란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

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그 동안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 전체에 하나의 도로명주소만 부여했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 반송·분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기관이 해당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예천군은 대상 건물군을 파악해 6개소 56동을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황원식 기자

문경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946억 신청

6차 농업 지원등 35개 사업 전년 대비 226억원 31%증가

문경시는 지난 9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2015년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2016년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문경시에서 신청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총 35건의 사업에 946억원을 신청하기로 심의했으며, 이는 전년도 31건 720억원 보다 226억원, 31%가 증가한 금액으로 내년도 많은 국·도비 확보와 문경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문경시 농업정책 전반의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문경시 홈페이지



지와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 지난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의회에 상정돼 획일적인 하향식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으로 차후 다양한 농업인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농업이 타 산업에 뒤지지 않는 전망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회를 주관한 고윤환 시장은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만이 문경농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재영 기자

문경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문경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안보·재난 사태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397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천만 생활안전 요원양성으로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전 국민 민방공 대피훈련 및 생활안전·안보 교육,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 공습 경보가 시작되면 15분간 주민대피 및 대피소



에서 다양한 생활안전·안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시민들은 민방위대원, 공무원 등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대피시설로 대피하면 된다. 차량통제는 없으나 운행 중인 차량은 갓길로 정차하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 오재영 기자

물맑은, 고장
정직한 농부

예천 Yecheonsaem

생육

예천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Clean Agriculture

공중도시 예천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9

의성 금성초 '오감만족' 즐거운 소방안전체험교육

의성소방서는 지난 10일 오전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에서 '오감만족' 즐거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금성초등학생·병설유치원생 9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소방안전교육과 이동안전체험차량 체험교육 순으로 실시됐다. 이동안전체험차량에는 △지진체험 △지하철 문개방 △연기·압축·비상탈출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하고 있어, 담당 소방관의 자세한 설명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을 직접 체험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의성소방서 김홍진 예방안전과장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소방안전교육에 많은 신청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청송

구미시, 대한민국 최고 청소년 행복도시 만든다

1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준비 국내 최대 규모 청소년 종합 행사

구미시는 오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구미코에서 열리게 되는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준비에 한창이다.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국내 청소년 행사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청소년 종합축제로, 2005년 시작된 이래 광역지자체에서 개최돼 왔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미시에 처음 개최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경북도, 구미시의 공동주최로 구미시가 대한민국 대표 기업 도시일 뿐 아니라, 청소년 육성에도 적극적인 교육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표출하는 예술박람회,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박람회,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안전박람회, 청소년활동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1:1 매칭이 가능한 경제박람회로 추진된다.

주요행사로 는 개·폐막식과 청소년의 날 기념식 등 공식행사와 함께 진로탐색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상설부스 100여개가 운영된다.

또한 인문학과 문화, 직업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 토크 콘서트, 학술대회와 함께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구미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청소년 문화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지역 청소년 동아리 무대 등으로 구미 청소년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

가 될 것이다. 또한 행사 전반에 시민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가족은 물론 지역시민이 함께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유진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구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이다.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으로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기환 기자



남유진 구미시장은 11일 오후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 2015년 FE(독수리)연습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12일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지역농협조합장 당선자 당선증교부 행사에 참석한다.



김영남 군위군수는 12일 부계면사무소(11시 효령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군위자치대학원 입학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2일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생활개선의성군연합회 창립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상주시의회, 의원국내연수로 선진의회 구현

전문 강사 초빙,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 연수 공부 연구하는 의회상의 구현

상주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거제시 일원에서 의원 15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의원국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연수기간 동안 한국산업기술원 정장 수 박사과 최민수 박사를 강사로 초빙,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과 실천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우수 지역특성화사업 현장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남영숙 시의회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우고 익힌 전문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 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연수를 통해 제7대 상주시의회의 올바른 활동방향과 전략을 구상해 나가고,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의정 역량강화와 의원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통해 생산적인 선진 의정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재영 기자

군위군,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군 위군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안보·재난 사태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397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민방공사태시 즉각적인 대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천만 생활안전 요원 양성으로 국민행복을 실천하고자 전 국민 민방공 대피훈련 및 생활안전·안보 교육, 긴급자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자체방호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군에 따르면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 공습경보가 시작되면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운행 중인 차량 또는 좁은 골목길이나 길모퉁이 주·정차 차량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들이 이번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재난대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유근 기자

의성, 봄맞이 일제 대청소 "모든 더러움 한방 해결"

의성군은 새로운 봄이 싹트는 봄을 맞아 군민 8천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의성군은 3월 한달동안 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11일을 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오전10시부터 18개 읍·면별로 주민, 기관 및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에 군 행사로 오전 10시 새마을회 등 20개 민간단체, 주민 500명이 참여, 아사천, 남대천, 성조천변 및 의성을 소재지 전역을 청소해 폐기물 20톤을 수거했으며 무단 투기 및 환경보호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박재성 기자



청송,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 실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과 관내 건설업체 대상, 각종 공사 부실시공·안전관리 예방 교육

청송군은 지역에서 시공되는 토목·건축 등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과 일반건설업, 레미·아스콘 제조업, 전문건설업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강사로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김진철 수석 연구원을 초청해 '건설공사 콘크리트품질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에 이어 이호문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콘크리트 주요시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청송군은 올해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위해 4개 분야 39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단'을 운영해 합동측량 및 실시계획을 시행 하였으며, 총 437건(사업비 499억 1100만원)에 대해 실시계획을 마무리해 건설공사 조기발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창재 기자

상주시, 2015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재난취약시설 등 점검

상주시는 사회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5 국가 안전대진단'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안전관리자문단(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20명과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원을 확보, 연차별 조치가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 산하에 △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하는 '총괄기획반' △부서별 안전취약 시설 및 안전신고 사항을 점검하는 '현장점검반' △상황 전파 및 상황판단 회의개최 등 상황 총괄 관리하는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오재영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 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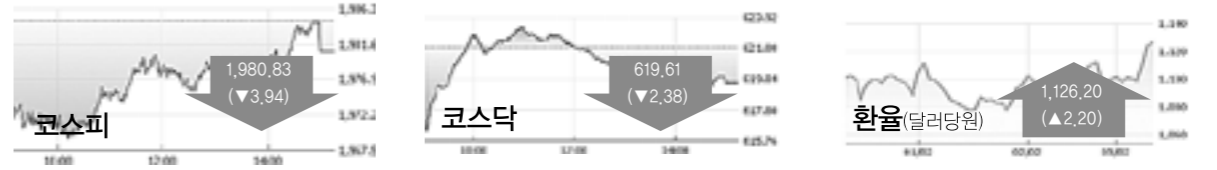
12만평, 종합스포츠타운이 있는 김천으로 오세요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는 해마다 국제 및 전국단위의 대규모대회 50여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수영팀 등 국내외 100여개 팀이 찾아오는 전지훈련 최적지로 매년 30만명의 스포츠인이 김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www.gimcheon.go.kr



대구시, 세계섬유시장으로 수출 관문 활짝 열다

첨단신소재와 슈퍼소재로 20여 개국 해외바이어와 상담뜨거워

2015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가 역대최대 규모인 국내·외 11개국 34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3일간의 비즈니스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행사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상욱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이완영 국회의원, 박정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인선 경상북도정무부지사,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이의열 PID조직위원장,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김동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주시경 대구경북지역본부 세관장, 김흥빈 대구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국내주요인사와 디바바 아브테다 주한에티오피아 대사, 터키오스만베이섬유협회 일케르 카라타쉬 회장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중동국가 등 국내외 참가업체 대표와 주요바이어들이 참석했다.

이의열 PID조직위원장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섬유업계의 고부가가치 신소재개발을 위한 강한 의지가 이번 박람회 참가열기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적인 섬유산업인 대구·경북의 우수한 고기능·첨단신소재를



중심으로 산업용 융합소재가 강화돼 국제적인 특화소재 박람회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어 향후 FTA세계섬유시장으로의 수출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효성, 코오롱, 휴비스, 영원무역, 성안 등 275개사의 국내기업과 11개국 65

개사의 해외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첨단기능성 신소재, 원사, 교직물, 니트, 친환경소재, 디지털프린팅, 텍스타일디자인들을 대거 출품했고, 특히 산업융합용 슈퍼섬유 연구개발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국내외 산업용관련 융합소재와 제품개발의 발전현황을 한눈에 볼 수

가 있어 해외바이어들과 국내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터키바이어 참관단을 구성, 이번 PID를 방문한 터키 최대의 섬유시장인 이스탄불-오스만 베이섬유협회 일케르 카라타쉬 회장은 "한국 최대의 화섬섬유산업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차별화된 한국의 첨단기능성소재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분위기가 만족스럽고, 향후 FTA시장개방으로 터키섬유시장과 대구·경북 섬유산지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무역증대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밖에 중국, 대만, 인도, 미국, 독일, 홍콩 등 65여개사의 해외참가업체들도 참가하고 있어 국내참가업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이태리, 터키, 중동지역 등 20여개국의 해외바이어와 LG패션, 인디에프, 이랜드, 보크레 등 국내대형의류브랜드와 동대문종합상가, 광장시장 내수바이어들도 대거 참가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의 상담성과 1억 9000만 불과 계약예상성과 8000만불의 목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제27회 대구컬렉션', '2015글로벌섬유비전포럼' 등 섬유패션산업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전시장 상담분위기가 뜨겁고 '창조융합수퍼섬유관', '섬유체험관', '소재&패션소싱관' 등 다양한 바이어페션쇼, 이벤트 등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풍성한 섬유산업 비즈니스축제가 되고 있다.

송종관 기자

특성화고생, 맞춤형 인력양성 청년 취업난 해소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지역 특성화고 (9개교) 3학년 28명 나노기술교육

(재)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에서는 대구지역의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특성화고 학생의 조기취업 및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및 교육청이 2011년 12월 나노 기업과 MOU를 체결, 나노융합실용화센터의 석·

박사급 고급인력과 이미 구축된 고가의 첨단 나노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참여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청에서 28명을 선발, 시행할 예정이다.

총 교육시간은 700시간 이상으로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 유망 중소기업과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을 수료한 32명 가운데 군 입대자를 제외한 학생들이 지역의 나노 기업의 산업인

력으로 취업되었으며, 특히 7명이나 채용한 ㈜금오EMS의 정병만 차장은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비교육생보다 현업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고 기업 내에서 현장 적응력도 빠르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대구시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은 "특성화고 생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조달청-우리은행, 해외시장진출기업 지원



수출 조달기업에 금융거래 우대·특화된 서비스 제공

조달청과 우리은행은 1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 중소기업(G-PASS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3년 전부터 G-PASS기업을 선정,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구매담당 등 수출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이 추천하는 G-PASS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과 특화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자금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기업에는 보증비를 상향,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전담 컨설팅팀 운영 등 수출업무 전 부문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양 기관은 조달청이 발굴·계약하는 전통문화상품의 판로지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과 각종 수출 경험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유망기업에 대해 맞춤형 수출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 현했다. 김치영 기자

대구가톨릭대 '신라 문화콘텐츠 디자인센터' 개소



대구·경북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양성·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대구가톨릭대 '신라문화 디자인 기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11일 전문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를 열고, 대구·경북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양성 및 디자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은 이날 교내 서요한관 1층에서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326㎡ 규모에 문화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전문 장비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문화콘

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 또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디자인 재능기부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단은 전국 대학특성화사업단 중 전국 7대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이자, 강원·경북지역 유일의 디자인 사업단이다.

사업단은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관광경영학과가 참여해 문화콘텐츠 디자인 융·복합 학문을 구축하였고, 문화예술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열린 대구가톨릭대 신라 문화콘텐츠 디자인센터 개소식에서 흥철 총장을 비롯한 귀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최경수 기자

'신의 물방울 사업' 참여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청도군과 달성군, 코레일, (사)위피는 11일 대구 달성군청에서 두 지역의 특산물인 '감'과 '토마토'를 주제로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고, 창조적 가치를 지닌 관광 상품으로 재구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신의 물방울 연계 6차 산업 창출사업(이하 신의 물방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도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신의 물방울 사업)에 선정돼 2016년까지 전체 사업비 가운데 90%를 국비 확보한 바 있다.

신의 물방울 사업은 청도군의 감 와인과 달성군의 토마토 와인을 주제로 청도군과 달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이다.

이 협약에 따라 청도군은 신의 물방울 사업 추진 공동사업단을 구성, 수도권 등 전국에서 출발하는 와인열차를 운행하고, 대구공항과 평택항 등을 통해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갖춘 관광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용규 기자

영천, 해빙기 건설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영천시는 11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및 토목 대형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로 지정, 관리중인 완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과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현황을 점검했으며, 건축·토목분야 민간전문가와 시설관리 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됐다. 김일만 기자

청도반시 염색제품,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참가

청도군은 11일-13일대구엑스코에서 펼쳐진 2015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했다.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최신 섬유관련 정보 및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섬유소재 중심의 비즈니스 전문전시회이다. 우리군 청도천염색연구회(회장 김종철) 회원 20여명이 시설편

공동브랜드로 청도반시를 원료로 한 감물염색 제품을 선보였으며 청도반시의 우수성과 원단, 의류, 소품 등 다양한 염색제품을 전시 홍보, 청도 천연염색산업의 경쟁력강화에 힘을 보탰다. 강용규 기자

5개 협력회사 대표와 안전·청렴협약 체결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불법하도급 근절,부패척결로 청렴사회 구현양장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1일 오전 사옥 경영상황실에서 5개 협력 회사 대표를 초청, 청렴추진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청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압 협력회사인 (주)광덕전력, (주)태광전력, (주)명전사와 저압 협력회사인 (주)한불이엔지, (합)성림기업 등 5개 협력

회사 대표가 참석했으며, 청렴 동영상 '청렴, 미래를 위한 약속' 시청, 오태석 전력사업처장의 반부패·청렴 실천의지 및 동참·협력 당부, 협력회사 대표와의 청렴협약서 서약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오태석 전력사업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한전과 협력회사는 상호협력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무엇보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불법하도급 근절 및 부패 척결 등을 통해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종관 기자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전국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다

“핵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광풍을 넘어 쓰나미가 몰려올 태세다. 30년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돌입하자 핵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절규의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4주기 맞아 시민단체들은 ‘노후원전 폐쇄 촉구’를 선언했다. 새정연 장하나 의원에 후쿠시마 원전참사 4주기를 맞는 11일 국회에서 특위 설치해 노후원전 안전성 검증하자는 논쟁을 냈다. 장 의원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노후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마치 지역정치 차원의 문제로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 안전문제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 고려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이 상업운전 개시한지 40년만에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노심용융과 대규모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전 세계에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각성하게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듬해에 열린 우리나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노후원전 폐기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국민수렴을 거쳐 원전계획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후폭풍... 원전 기술기준 신뢰도 '하락'

지난 2월 27일 금요일 새벽,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이 결정됐지만 원전 안전성을 사이에 둔 진실공방은 여전히 치열하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성 측면에서 수명연장을



결정했지만, 일부에서 원전 기술기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 보다 ‘최신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나게 됐다”면서 “일각에서는 좀 더 안전한 원전을 위해 만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새로운 기준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기술기준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린 안전성 논란의 핵심은 ‘최신안전기준’이다. 논란이 많은 ‘R-7’은 1991년 캐나다에서 만든 ‘켄드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요건’으로, 1970년대 건설된 월성1호기에는 적용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회의 당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주장한 측은 “월성1호기에 ‘R-7’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식 기관에서 수년에 걸쳐 심사한 결과 현재 설비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수명연장을 반대한 측은 심사에 상관없이 최신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 얻지 못한채 원자력발전 중심 에너지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서 특위 설치해 노후원전 안전성 검증하자

‘R-7’이 만들어질 당시 캐나다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새롭게 기술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원전의 안전설비 및 기술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국내 기술기준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해외 원전 선진국들의 경우 △항공기 충돌이나 테러와 같은 강한 충격에 대비해 원전의 벽체를 보강하거나 이중 격납 설계를 적용하고 △원전이 침수되거나 전기가 끊길 경우 즉각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비상발전기를 호당 4대를 갖추도록 하며 △비상전력으로 사용할 ‘대체교류전원(AAC)’을 원전 1호기 당 2대를 설치하는 등 국내 원전에 비해 상당부분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 기술기준’의 명확한 검증과 국내 원전 적용 여부를 파악,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년을 끌어온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어렵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앞으로 더 논란과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슨 일이든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우선”이라며 “계속운전 가능성을 검

증하는 과정에서 하락한 기술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원전이 이를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핵없는세상대구시민행동 ‘월성1호기 폐쇄’ 촉구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은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와 함께 폐쇄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가 난 지만 4년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회견에서는 노진철 전 전국달학교수모임 대표가 ‘후쿠시마 핵사고와 에너지 정책’, 권숙례 생협활동연합회 의제기획팀장과 황동환 천주교 신부는 각각 ‘월성1호기 재가동과 생명안전’과 ‘원전과 윤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



울산시민사회 원로 24명은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 폐쇄 및 탈핵사회를 위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원로는 환경과 교육계, 법조계,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더 이상 노후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와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월성1호기 민간감시단장으로 1년 6개월여 동안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한 김연민 교수(울산대학교)도 이번 선언에 동참했다. 김 교수는 “민간감시단이 월성1호기 안전여부를 검증한 결과, 수명연장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간감시단의 보고서가 과소평가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안전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과시킨 만큼, 지역 사회가 크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원로들은 원자력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사이에 끼어 있는 울산은 울산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내에 총 1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태원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행정구역 단위로 사고 하지만 원전이 작용하는 범위는 행정구역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원전 숫자와 수명, 고장 횟수 등을 토대로 세계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다음으로 원전사고 위험지역으로 울산을 지목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역 기자





대구시립극단 예술감독에 최주환 씨
찾아가는 공연 등 활성화 밝혀



대구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제5대 대구시립극단 예술감독에 최주환 씨(47·사진)를 내정했다.

최주환 내정자는 영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 석사과정(연극전공)을 졸업했으며,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예술감독 및 대덕문화재단 예술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현재 극단 조이스이어터 대표로서 매년 다양한 연극 작품을 무대에 선보이고 있으며, 제19회 대구연극제 연출상, 제17회 대구연극제 남자 우수연기상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최주환 내정자는 "대구시립극단을 대중성과 공공성, 예술성을 겸비한 극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극단을 만들기 위해 시민연극교실, 찾아가는 공연 등을 활성화하고, 국·공립극단 만 아니라 민간극단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시립극단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구시는 최주환 내정자에 대해 녹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조화 등을 거쳐 임기 2년의 대구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3월 말에 위촉할 예정이다.

송종관 기자



김시영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장 취임

지난 10일 새마을회관 강당에서 장욱형 영주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각 기관·단체장,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2009년부터 6년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한 제8대 협의회장 김인환씨는 이임, 김시영(62)씨가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3년간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신임 김시영 회장은 "국민운동 단체로서,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선진한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상기 기자



조현준 문경 개포남성의용소방대장 취임

문경소방서 개포남성의용소방대는 10일 개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포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고시보 문경소방서장을 비롯, 이현준 예천군수, 안희영 도의원, 김은수·권영일 군의원 및 각 기관단체장, 문경시 및 예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서 신임 조현준 대장에게 경북도지사 공로패, 예천군수 공로패, 소방서장 공로패, 예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재직기념패, 개포의용소방대의 공로패를 전했다.

조현준 신임대장(52)은 "명예롭게 퇴임하는 정연홍 대장님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원들의 뜻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도록 신뢰받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구미 인동동 주민, 장학재단에 7700만원 기탁

주민에 동참 권유 총 53명 참여

구미시 인동동(동장 박세범)은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동동 주민 및 단체에서 모금한 7700만원을 (재)구미시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재)구미시장학재단은 2008년 설립돼 지난해 2월에 기금조성액 200억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이어져 현재 231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구미시는 세계적인 IT산업도시로 이에 걸맞는 교육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어 2008년에는 교육특구 지정과 더불어 구미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과 품격 교육 환경 조성의 원동력인 (재)구미시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문학교 설립, 지원 뿐만 아니라 서울학숙을 건립하는 등 구미의 인재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해 동참하고자 인동동에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3월5일까지 2개월간 장학금모금 집중기간을 운영했다.

인동동은 각종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면담을 통해 장학금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한 결과 주민 및 7개 단체를 포함 총 55명이 참여, 7700만원이란 큰 금액을 모금하게 됐다.

이번 장학금 모금운동을 추진한 박세범 인동동장은 "지금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장학금 모금의 필요성에 모두가 동참을 해 실질적인 모금된 금액이 7700만원이란 큰 금액이 됐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탁자 전원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

한편 인동동은 이번 기탁으로 그치지 않고 장학금에 참여한 55명 전원을 인동동장학금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센터내에 장학금모금 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학기금 공무원 1인 1개좌 갖기 운동에도 전직원(20명)모두 참여를 완료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이마트 상주점 '희망나눔프로젝트' 협약

'희망나눔 봉사단' 구성, 매년 사회공헌활동 전개

상주시와 (주)신세계 이마트 상주점(점장 박기범)은 11일 시청 시민의 방에서 관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후원하

기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희망나눔 프로젝트'는 1년간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마을 환경개선, 희망그림대회, 희망 나눔 바자회, 희망김장, 헌혈 및 헌혈증 기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주)이마트 상주점은 2011년부터 '희망나눔 봉사단'을 구성, 매년 상주시와 협약,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취약마을 가꾸기, 환경그림대회 개최, 바자회 개최, 독거노인 밀반찬 지원, 김장김치 지원 등 1000만원 상당을 지원,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뭉소 실천하는 기업으로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박기범 점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사랑을 전하는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해 지역과 함께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재영 기자



영주시, 깨끗한 우리마을 우리 손으로~

풍기읍,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 대대적으로 실시

영주시 풍기읍은 13일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겨울동안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새봄맞이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한다. 풍기읍새마을협의회(회장 이기원, 부녀회장 유수옥)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새마을 대청소에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 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남원천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행사에는 해빙기를 맞아 남원천 1.5km(상수도수원지-풍기1교-전교)에 부유 퇴적 쓰레기 등 겨울내 묵은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며 수변지역 일대에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 영농폐비닐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풍기읍새마을협의회 관계자는 "새마을 대청소를 생활화해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5월 8일까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 다시 찾고 싶은 풍기읍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청정하고 깨끗한 첫인상을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주정례 풍기읍장은 "청결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마을 대청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름다운 풍기읍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 주자"

대구북부경찰서, 합동캠페인 펼쳐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란 주제로 침산초등학교에서 이날 오전 8시 경찰서장·경찰관 및 북대구초등학교 교직원, 자율방범대원·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60여명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안·아·주' 합동캠페인은 학교폭력예방 범시민 공감대 확산 및 봄 조

성을 위해 북부서 관내 3개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실시했으며, 등교하는 초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합동캠페인 및 통학로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병행 실시했다.

북부경찰서는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운동의 봄 조성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합동캠페인 실시 등 어린이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종관 기자

(주)파인메디스, 대구특구 제4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기업인지도 상승과 세계 혜택 두 마리 토끼 잡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는 2015년 대구

특구 제4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주)파인메디스(대표 전성우)를 지정했다.

(주)파인메디스는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업체로 '미세침습 내시경용 다기능성 절개도 기반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전국 30여개 종합병원 및 300여개 지역 로컬 병원에 내시경 시술기구를 납품하고 있다.

전성우 대표는 현지 칠곡경북대병원 위암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동료 의료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했고, 고객에게 사용법을 직접 교육하고 있다.

이번에 (주)파인메디스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를 감면 받게 됐다.

박영덕 기자



소리없는 봉사로 외로운 이웃들에 희망과 사랑을 한국부인회 문경시지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경북도지부 문경시지회는 지난 10일 문경읍에 위치한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방문, 입소 어르신들과 하루를 보내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한국부인회 문경시지회는 1987년 5월에 설립돼 현재 김월분 지회장의 35명의 회원

으로 구성, 지금까지 총본부의 사업계획이나 행정기관과 연계된 각종 행사의 차 무료 봉사, 캠페인 참가,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 등의 통상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과 회원들 간 논의를 거쳐 사회·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 돕기, 노인전문간호센터 매월 방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에 후원금으로 100만원의 기탁한 바 있다.

오재영 기자



익을... 생각한다

■ 광역 칼럼

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



염명천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지구에서 생명이 형성된 이후 5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각각 약 100만 년에 걸쳐 진행돼 매년 생물의 70~95%가 멸종했다고 한다. 원인은 기온 급변, 산소농도 저하, 메탄의 대량분출, 화산작용에 의한 산성비, 운석충돌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포유류 1종의 멸종에 50만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한 달이 걸리는데 이는 과거 대멸종의 100배의 속도라고 한다. 어떻게든 기후변화가 아니어도 인류는 지구환경의 급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류는 1992년 리우선언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으나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몇몇 유럽 국가는 적극적으로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지만, 말과 달리 행동으로 호응하는 나라는 적다. 에너지를 수출하는 자원보유국, 경제발전이 급한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소극적이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사실상 하지 않

기로 해버렸다. 올해 있을 파리 유엔기후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늘 반복돼왔다.

인간이 이처럼 이기적인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유인원에서 갈라진 이후 27종의 인류종(種)에서 1종 즉,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그중에서도 역경을 거치며 극도로 이기적인 개체들만이 생존하고, 자손을 남겼다. 그 후손이 현재의 인간이다. 산업혁명으로 소득수준이 개선됐지만, 문명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는 개인, 조직, 지역, 국가 간 경쟁을 끊임없이 강요한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역사는 이런 문제에 참고된다. '전제 왕정'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비옥한 땅에 인구가 밀집해 번성했지만, 주기적인 범람이 문제였다. 그러자 공동 치수사업에 효과적인 정치체제가 성립한다. 전제 왕정은 관료제, 상비군, 노예제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해 번영을 이뤘다. 중국도 이렇게 황하의 치수를 해결한다. 마야와 잉카도 주기적인 한발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면, 늘 출고 생산성도 낮지만, 그렇다고 큰 자연재해도 없는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전제 왕정이 유지되지 못했다.

기후대응도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세계정

부의 수립이 대안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후대응의 효과가 낮을 것이다.

민정부는 선거권자의 단기적 이익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위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유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대응은 더 어렵다. 설사 어느 국가가 나서도 타국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 국가들도 내심은 기후대응 기술을 고가에 수출하는데 관심을 더 갖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자원 빈국에 국민소득 50달러에서 일어난 나라다. 이제 3만 달러라고 하지만, 성장의 동인은 쇠퇴하고 사회적 모순은 증폭되고 구성원 모두 경쟁에 시달린다. 산업공동화, 자산가치 하락,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 양극화와 노후빈곤 등이 '현실'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일본의 그림자가 한국에도 어른거린다.

선진국도 국가경쟁력 제일주의로 치닫는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경쟁적 금리 인하와 통화 증발은 오직 자국의 경기부양과 실업해결만을 주목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19세기 말 유럽의 관세전쟁과 닮았다.

한국의 기업은 수도권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규제의 명분에 발목이 잡혀있다. 경쟁력과 좋은 세상은 일치하지 않지만, 경쟁력을 잃으면 생물의 멸종처럼 지구 상에서 사라진다. 19세기 말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던 조선이 그렇게 망했다.

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에 어떤 식으로 가치배분을 해야 할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시 최악한 한국을 기후대응 선도국이었고 기려줄 외국인도 없다.

■ 윤신근 애견 이야기

개털, 어떻게 관리해줄 것인가 <13>



윤신근 수의사

우리는 개들은 스스로 자신의 털을 고르거나 상대 개의 털을 갈라주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야생의 개들은 보온과 방수의 최대화를 위해서 항상 좋은 상태의 털을 유지하려고 한다. 벼룩 같은 기생충을 없애려 노력하고, 스스로 문질러 이물질이 털에 내기도 하며, 이빨로 헝클어진 털을 물어뜯어 자신의 피부와 털을 관리한다.

또한 같은 품종끼리는 서로 몸단장을 해주



으로써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기도 한다.

개는 주인이 직접 몸 손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개를 손질하는 목적은 개의 피부와 털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이 우선이다. 또 매력적인 조건을 유지하고자 기생충을 없애고 티끌, 풀씨, 땀 부스러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개 고유의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고, 피부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개와 주인 사이의 친밀함을 더해 줄 수 있다.

빗질을 할 때는 거칠지 않고 빠르게 하는 것이 피부를 자극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한 마사지도 될 수 있어 좋다.

털 손질을 할 때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꼬리 쪽을 향해 뒤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는데, 털의 결을 따라 빗질을 하면 몸 전체가 잘 손질되기 때문이다.

유난히 털이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털갈이 때문인지 피부병 때문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만일 피부병이 의심된다면 즉시 수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털갈이 시기에는 촘촘한 빗이나 브러시로 솜털을 뽑아내듯 빗질을 해준다.

개털 빗질하는 도구로는 슬리커 브러시, 빗, 돈모 브러시, 와이어 브러시, 양날 빗 등이 있다.

혁신도시 인재채용, 감정원을 본받으라

대구 및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10% 안팎에 그쳤다는 보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을 개선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이전기관들의 올해 지역인재 채용방침 역시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도대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배치한 당초 의도를 아예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한국가스공사·한국감정원 등 대구혁신도시 이전 9개 기관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경북혁신도시 이전 5개 기관은 오는 19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14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채용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발표 등과 함께 오전부터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해 각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대1 취업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채용수준이 어떤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지방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에서 2013년 5.0%, 지난해 10.2%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번 채용설명회를 계기로 대구·경북지역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율을 보면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은 2012년 7.2%에서 2013년 14.1%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지난해 8.9%로 다시 추락했다. 경북혁신도시는 2012년 0.8%, 2013년 0.4%에서 지난해 9.6%로 개선됐다가 올해 채용을 계획은 7.7%로 다시 하락했다.

대구-경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율 10%대는 부산혁신도시가 10.2%대 계속 상승하면서 올해 목표율을 23.1%로 잡았고, 경남혁신도시도 3.5%에서 11.9%를 거쳐 올해 목표율 16.7%로 잡은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처럼 하려고 들면 가능한 일이다. 2013년 8월 이전 후 그 해 21.3%에서 지난해 26.4%로 비율이 높아졌고, 올 5월 채용 때는 30% 이상 올리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옮겨온 신용보증기금의 2014년의 실적 8.7%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인재채용 때 지역인재 할당제와 지방대출신 우대제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들은 이제 지역에서 결판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아베, 메르켈 독일 총리 충고를 따르라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우리는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다"며 일본도 침략전쟁을 벌인 과거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비수와 같은 말을 했다. 메르켈은 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와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일본 아사히신문사 방문에서 그러한 말을 남겼다. "일본이 역사문제를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과거 독일의 경험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타이르듯 아베 신조 총리에게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충고한 것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또 아베 총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과거의 정리가 화해의 전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함을 시사한 것"이라며 바른 말을 했다.

독일과 일본은 똑같은 2차 대전의 침략국이던 패전 70주년이 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함으로써 독일 지도자들이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

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메르켈 역시 2013년 다하우 나치수용소를 찾은 것을 필두로 여러차례 독일이 과거의 범죄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음을 주저하지 않았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부끄러운 과거사를 단순히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와 보상을 지속하면서 유럽의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아베와 극우파가 지배하는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피해국가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천인공노할 집단이다.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기 하루전인 8일 자민당 창당 60주년 기념식에서 2차대전 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할 것을 '자민당 활동방침'으로 채택,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하는 기미는 손뼉만큼도 없다. 일본은 그 뿐 아니라 지금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도 수정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베가 과거사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15

신문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15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살아 숨쉬는 낙동강,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맑고 건강한 낙동강,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행복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살아 숨쉬는 건강한 낙동강**
 - 안정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확보
 - 수질오염물질 하천 유입 선제적 차단
 -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 관리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취약지역 사전예방 및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 환경 유해원천으로부터 주민 건강보호
- 지역 생태계 환경가치 증진**
 - 생태우수지역 환경가치 증대
 - 생태계 건강성 회복
 - 개별지 보전이 조화된 친환경적 개발 유도
- 주민체감형 고품질 환경복지 실현**
 -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환경복지 실현
 - 고객 중심 서비스로 친환경 생활질서
 - 수요자 중심 환경보호 및 뉴미디어 홍보 강화
 - 직원역량 강화로 환경서비스 질 제고

세계 물 산업의 메카!  경상북도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포럼



기간_ 2015. 4. 12 ~ 17 (6일간)

장소_ 경주 화백컨벤션센터(경주 HICO)
대구 EXCO

“Water for Our Future”

규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내용 포럼 - 4개 주요과정별(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